

영암 '인구 활력·청년 희망' 지방소멸 위기 대응

생애 주기 맞춤 지원 등 장기 정주 촉진

청년층 자립·행복 증진 성공적 귀농 유치

다문화 통합·생활인구 확대 전략 병행

영암군이 '인구 활력'과 '청년 희망'을 축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2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은 생애주기 맞춤 지원, 청년 행복 증진, 귀농귀촌 유치, 다문화 통합 등 전략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나섰다.

영암군은 '영암 주소 갖기 캠페인'을 실시해 전 입자에게 지원금과 초·중·고 입학축하금, 신혼 부부·다자녀가정에 대출이자·이사비용·증가수 수료 등을 지원하며 정착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출생아 1인당 18세까지 총 4천320만원 출생 기본 수당 지급, '영암 주소 갖기 캠페인'을 통해 전입자 지원금, 신혼부부·다자녀 금융 지원 등 전방위적인 정착 지원.

지방소멸 위기 대응 핵심 정책

파격적인 출생 및 정착 지원

청년 주거 및 활동 강화

성공적인 귀농귀촌 유치

포괄적인 다문화 사회 통합

출생아 1인당 18세까지 총 4천320만원 출생 기본 수당 지급, '영암 주소 갖기 캠페인'을 통해 전입자 지원금, 신혼부부·다자녀 금융 지원 등 전방위적인 정착 지원.

공공주택, 만원주택, 활력타운 조성으로 주거 안정을 꾀하고, '달빛청춘마루' 운영과 청년문화수당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자립과 활발한 활동 지원.

'영암에서 살아보기' 같은 체험형 프로그램과 창업자금 용자 등으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이는 지난 5년간 전입자의 37%가 귀농귀촌인이라는 성과로 나타남.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법률 상담,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해 전체 인구의 21%를 차지하는 외국인 주민을 지역의 중요한 동반자로 포용.

주를 추진하고 있다.

청년층을 위한 정책도 강화됐다. 영암형 취직 사회책임제, 공공주택·만원주택·활력타운 조성, 청년문화거리, 청년문화수당,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전주기 청년 정책이 추진 중이다.

청년소통센터 '달빛청춘마루'는 청년 간 소통

과 연대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청년 주도형 프로젝트도 활발하다.

주거 안정 기반도 함께 강화된다. 영암형 공공 주택 지원사업, 전남형 만원주택, 지역활력타운



지난해 열린 달빛청춘마루·달빛그린빌 개관식 모습. 달빛그린빌은 청년 공직자에게 안정된 주거를 제공하고, 달빛청춘마루는 청년 소통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영암군 제공>

'서울농장', '영암에서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기찬텃밭' 등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농촌 생활을 경험하게 하고, 정착 이후에는 창업자금 응자, 정착금, 우수 창업 지원사업 등이 뒷받침된다.

최근 5년간 전입자의 37%가 귀농귀촌인으로 집계되며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영암군은 전체 인구의 21%를 차지하는 외국인 주민을 지역 동반자로 포섭하기 위해 다문화 통합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삼호읍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법률·비자 상담, 돌봄, 자원봉사 참여 등을 지원하며, 국적취득 대비 교육과 계절근로자 제도도 운영 중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단순한 인구 유입이 아니라 '머물고 싶은 도시, 함께 살아가는 지역'을 만들고 있다"며 "출산·양육, 청년 자립, 귀농귀촌 정착, 이주민 통합까지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을 실현해 누구나 안정적으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강진, 지역경제 체감 예산 신속집행 '총력'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회서 실효성 모색

시설비 중심 실적 점검 등 지속 모니터링

강진군이 침체된 지역 경제가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신속집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군정 소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상반기 시설비 사업의 집행 실적을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집행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보고회는 이병철 강진부군수 주재로 기획홍보과를 비롯한 전 부서장이 참석해 담당 부서별로 개별 사업의 집행 계획, 실적, 집행 부진 원인, 향후 조치계획 등을 상세히 보고했다.

강진군은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핵심 재정 운용 전략으로 삼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설비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로, 예산의 신속한 투입이 군민 체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군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다.

보고회에서는 지난 13일 기준 집행 실적을 토대로 각 부서장이 직접 나서 추진 중인 사업의 현황과 실적을 설명하고, BFI인증 지원, 보상 지연, 설계 변경,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공사 일정 지연 등 다양한 집행 부진 사유를 공유했다.

이병철 부군수는 "신속집행은 단순한 예산 소진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 집행 수단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각 부서는 사전에 발생 가능한 장애요인을 예측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에는 빠르게 대처해 집행률 제고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각 부서가 자체적으로 대체사업 발굴이나 예산 전환 등을 통해 부진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 부군수는 "정책 성과는 수치가 아니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단 한명 소외도 없는"

영광군, 통합돌봄사업 주민 홍보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 목표

영광군은 "최근 관내 경로당 10개소에 방문해 영광형 통합돌봄사업 홍보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영광형 통합돌봄은 군민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보건의료, 요양간호, 생활지원, 주거지원 등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통합 지원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광형 통합돌봄 주요 사업으로는 질병·부상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가사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틈새돌봄서비스 ▲주 3회 대상자의 영양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영양도시락 지원 ▲의사와 사회복지사가 주 1회 가정방



문해 진료 및 돌봄 상담을 하는 방문의료 서비스 ▲의료기관 접수 및 수납 등을 도와주는 병원돌봄서비스 등이 있다.

영광군은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 돌봄 대상자 294명을 발굴하고 총 477건의 돌봄서비스를 연계했으며, 특히 영광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맞춤형 영양도시락 사업은 올해 138명에게 5천208건의 도시락을 제

공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영광군은 2026년부터 전국 시행되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에 대비해 2023년부터 선제적으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 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영광=김동규 기자

무안 '중부권 환경클린센터' 준공

권역별 통합 환경영재 체계 구축 본격화

무안군은 22일 "생활폐기물 관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청소 업무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부권 환경클린센터를 신축해 지난 19일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중부권 환경클린센터는 총사업비 27억원(특별교부세 5억원, 도비 2억원, 군비 20억원)을 투입해 무안읍 성동리 55번지 일원에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다.

주요 시설로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본부 ▲종량제봉투 판매소 ▲사외실을 포함한 종사자 휴게공간 ▲청소차량 차고지 등이 갖춰졌다.

센터는 무안읍, 몽탄면, 청계면 등 3개 읍·면



의 청소업무 종사자들에게 쾌적한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 청소 인력과 차량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청소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무안군은 권역별 통합 환경영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3년 삼항읍에 남부권 환경클린센터를 조성했고, 이번 중부권 센터 조성에 이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현경면에 서부권 환경클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김신 무안군수는 "환경클린센터는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기반 시설"이라며 "서부권 환경클린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균형 발전과 효율적인 청소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상호 기자

정재훈·최원석 목포시의원, 주민생활 안정 의정활동

섬주민 생필품해상물류비 지원 조례안 제정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 졸속 추진 질타



포시가 주진 중인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에 대해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목포시의원들이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22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정재훈 목포시의원이 섬지역 주민 생활물류비 지속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보편적인 복지행정 실현을 추진해 호응을 얻고 있다.

정재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목원동·동명동·만호동·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섬주민 생필품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의결된 '목포시 섬주민 생필품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목포시 섬주민들의 생활편의 개선을 위해 지난 39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정책 제안을 통해 의결된 조례안으로 섬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물류 및 해상물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섬주민에게 액화석유가스(LPG), 난방용 유류, 농수산물 등 생필품에 대한 제정지원의 명문화 ▲생활물류비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원석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상동·삼항동·옥암동)은 같은 회기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목포시가 2023년부터 4차례에 걸쳐 예산

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협의를 시도했지만, 단 한번의 긍정적인 답변 없이 '반대', '불가', '사고 책임은 목포시'라는 입장이었음을 확인했다며, 결국 올해 5월 예산안 통과에 있어 목포시가 미디어파이낸스 구현은 안전상 이유로 '협의 불가'하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음을 밝혔다.

최원석은 "단순히 케이블에 레이저를 발사

해 조명을 연출하는 수준을 대안으로 내놓고,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이겠다는 건 무책임한 예산 낭비이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사업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함평군, 생활밀착형 숲 실외 정원 '조성'

대동 팽나무숲·월산사 일대



함평군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군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 속 정원 공간을 조성했다.

함평군은 "최근 대동면 팽나무숲 주변에 조성한 '2024년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은 탄소저감과 폭염 완화 등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생활권 정원 조성 사업이다. 탄소흡수원 확대와 생태계 건강성 증진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함평군은 총사업비 5억여원을 들여 대동면 팽나무숲과 함평군 향토문화유산 1호인 월

산사(사진) 일원에 실외 공원을 조성했다.

실외 정원에는 동백나무와 블루아이스 등 조경수와 함께 돌단풍, 꽃잔디 등 초화류를 식재했으며 데크와 앉음벽 등 휴게시설도 설치돼 방문객들이 자연 속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함평=김연수 기자

완도해양치유센터 입장권, 내달 18일까지 최대 50% 할인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은 22일 "2025 완도 방

문의 해'와 여름철을 맞아 입장권을 최대 50%

할인하는 파격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할인은 기본프로그램 이용권 50장 구매 시 최대 60%, 프리미엄 프로그램 이용권 20장 구매 시 40%, 30장 이상 구매 시 50% 적용되며, 디럭스 프로그램은 30장 이상 구매 시 50% 할인받을 수 있다.

이용권은 성수기 시즌을 고려, 오는 7월 18일

까지 판매할 예정이며,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 현장 판매한다.